

京表具



表具為掛軸、畫框、屏風等之總稱、與日本建築有密切的關係。表具技法與佛教一同傳入日本、其中掛軸經歷每個時代文化的琢磨、於室町時代完成高超技法。

室町時代 1336-1573

製作：京都市

京裱具



裱具是挂轴、裱框、屏风等的总称、与日本建筑密切相关。这种技法随着佛教一同传入日本、其中又属挂轴经历了各个时代文化的洗礼、在室町时代达到高超技法的境界。

室町时代 1336-1573

制作：京都市

교(京) 표구



표구는 족자, 액자, 병풍 등의 총칭으로, 일본건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. 그 기법은 불교와 함께 일본으로 전해져 그중에서도 족자는 각 시대의 문화와 함께 발전하여 무로마치 시대에 그 고도의 기법을 완성시켰다.

무로마치 시대 1336-1573

교토시 제작

Kyo-hyogu (Mounting)



Hyogu refers to hanging scrolls and screens, and they are closely connected to Japanese architecture. Their techniques came to Japan together with Buddhism, and *kakejiku* hanging scrolls in particular improved with the passage of time until the techniques of their production were mastered in the Muromachi period.

Muromachi period 1336-1573

Produced by City of Kyoto